

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세심하게 만든 것
책임 있게 담아냅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41 호

회장·노태형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 FAX·737-0698 / 광고국·732-1522 / 구독신청·737-8881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0월 1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시다

혜불 무대책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일어난 사랑화와 파교, 김대박 소장 시주금 뇌물착용 재판 등 근내의 종교관련, 백령도 면장의 불교행사 방해 등 각종 기관의 종교관련 사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영성교 등의 불교외교 행위 등이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여전하다.

특정 종교인들의 그릇된 신앙심에서 비롯된 혜불 행위는 다종교사회인 우리 사회의 근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법당국에서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신병자의 소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관대해 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조계종 포교원과 종교연맹대 특위를 방문, "헌법 제 20조(종교의 자유) 규정의 근본 취지에 반하여 특정종교에 편향성이 없이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사찰 화재 및 혜불, 도난 사건에 대한 예방과 범인검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불교계는 수많은 혜불사건을 겪었고, 수많은 법안이 앞을 보지 못한 채로 불같이 휩쓸었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일이 별로 없었고, 법안이 채택된 일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경찰당국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력을 발휘해 사찰문화재 털이범 등 혜불 행위자를 빠른 시간내에 반드시 잡아라 한다. 이 같은 선례를 쌓아가는 일도 더 이상의 범죄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 조계종 비서관이 재출한 문화재 보호법을 속히 개정해 비서관 문화재 등에 대한 관리의 철저와 도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종단도 종교연맹대특위와 동 관련 단체의 예산·인력 등을 현실에 맞게 늘려 각종 혜불 및 종교연맹 사건에 대한 의지와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인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pi.com)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 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02-733-4800

빠르면 11월중 재선거

조계종 총무원·종회·선관위 일정등 조율 정화회의 "총무원수후 선거" 맞서

조계종시대 해결방안이 총무원장 선거의 조속한 실시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고산스님이 5일 "종도들과 함께 백의종군하여 범종 수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총무원장직 사퇴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원택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종원·종법에 따라 총무원장선거를 실시하겠다"며 "종단선거관리위원회 중앙종회와 논의해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범종)는 12일 14회 임시총회를 열어 총무원장선거법 등 총무원장선거 관련 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의(위원장 원택)는 7일 회의를 열어 조속한 총무원장선거 실시 방안을 장하고, 종회의 총무원장선거법 등의 개정

이후인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선거 일정 등 선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1월중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은 "고산스님의 항소권 포기로 법원이 판결확정명령을 발급했고, 이에대한 원고측의 이의제기를 각하했으므로 총무원장 직무대행 도겸스님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총무원장직 사퇴로 공직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무원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화회의(의장 범종)는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항소로 총무원장 직무대행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총무원장의 집행부는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법리 3면) 따라서 정화회의는 직무대행 집행부 구성과 총무원장 인수 절차를 먼저 밟은 후

총무원장선거를 치러 분류를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총무원장선거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정화회의를 사실상 이끌어온 원택스님은 "선거를 통해 총무원장을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정중심제를 시사하고 있어 이번 사태 해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불자들은 지난 해와 같은 물리적 충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양측이 양보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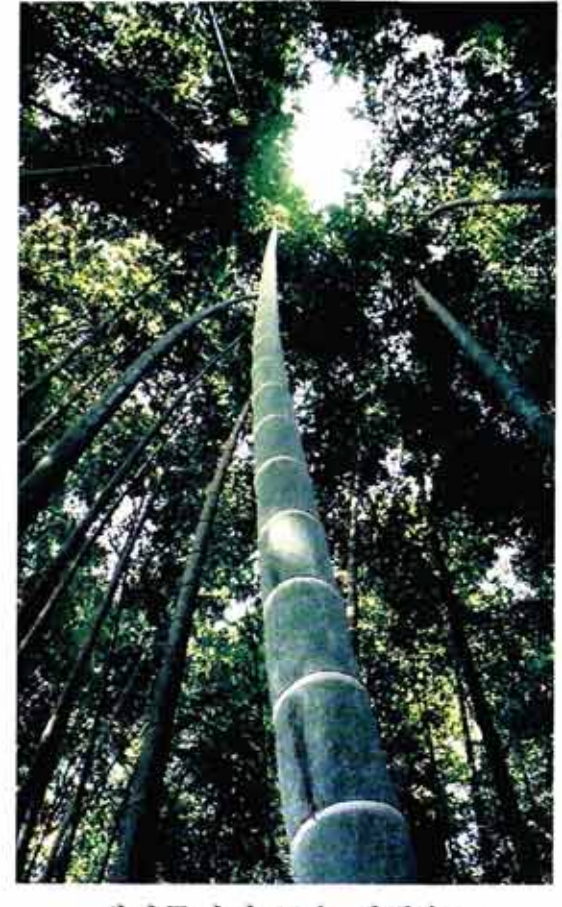
정성운·김재경 기자
(swjung@buddhapi.com)

종단현안·선거법등 논의

12일 조계종 원로회의·종회 열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12일 회의를 열어 종단현안에 대한 대책과 종회 개정안 인준을 논의한다.

중앙종회(의장 범종)도 12일부터 14회 임시총회를 열어 △종단 긴급 헌안 대책의 건 △조계종원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종단협의회의는 이에 앞서 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산스님의 조계종총무원장직 사퇴에 따라 대고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회장대행으로 선임했다. 종단협의회의는 또 이날 주한 타이베이대교부에 지진피해복구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대나무처럼 곧은 신행을...

혜심스님은 '죽존자전(竹尊者傳)'이란 글에서 대나무를 두고 '남미다 감로(甘露)에 젖고, 때로는 범룡(梵龍)을 내니, 속세를 떠나 자연을 도우며, 큰 지비의 마을을 들는다'고 하였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오른 대나무를 바라보면, 현대불교신도도 그렇게 곧게 뻗어 오르기를 기원하며 정진의 다름가짐을 다진다. 종성들을 향해 죽비의 소리를 울려나 맺일 시시로 쏠아지는 햇살이 더욱 눈부시다.

전남 담양=고명태 기자

"일심동체하여 범종 수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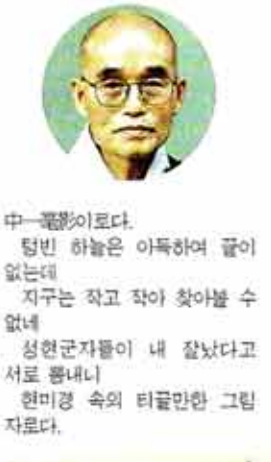
조계종 혜암종정 교시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7일 "종도들은 일심동체하여 범종을 수호하자"고 교시를 발표했다. 다음은 교시 전문.

세상만사의 원형이정(元亨利貞, 사물의 근본이치)은 사귀귀정(貞)이니 후자후위(或成或敗, 때에 따라 위업과 지비로) 종통수호하여 광도종생(廣度眾生, 널리 생명을 제도함) 일지이다. 금반 발생한 종단 마당은 승가발전의 좋은 기회이니 사부대중들은 환희극복하여 화발결실(花發結實, 꽃피어 열매를 맺음)토록 하라.

종단 발전이 국가 발전이니 종도들은 일심동체하여 범종 수호와 호국불교의 사명감으로 불공중취하고 국대민안토록 하라.

大德無量功德無量 地球小 小眾難免이라 聖賢達士互相誇라 顯微鏡



"조계종 정상화" 촉구

종단협 8일 성명 회장대행에 인곡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4개 종단대표들은 8일 조계종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계종단 문제는 한국불교와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종생구제와 불국정토 구현에 앞장서는 종단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종단협의회는 또 "재판부가 한국불교의 대표자를 임명한 것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해 드려요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 노년층과 노인복지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동인천 가천의대 김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 (무릎 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수원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불교 복지현상을 발원하는 이번 불자의료지원사업에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최: 동인천 김병원 · 현대불교신문사

- ◆지원규모: 1개월에 3명
- ◆지원대상: 스님 ·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
- ◆지원내용: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경상 심하게 걸쭉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 ◆구비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단한 의료지원신청서(소장양식)
- ◆진료비 무료: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0,000원 안팎)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
- ◆접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2-4162)

창간 5주년 특집 28면 발행

불교 새천년준비 4·5·6면
메달로 나뉜 고승들 10·11면
외국인이 본 불교언론 23면
현대불교 5년 24·25·26면

10만 불자 정토결사 전진대회

"나무아미타불" 청명염불수행 (稱名念佛修行)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상상을 초월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서양 육대주(東西洋 六大洲)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이 변혁에 살아 남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증생구제를 실천수행의 생명으로 하고 있는 불교는 지금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전국 신도회는 불교를 일으키고, 불교를 전하고, 증생을 구제하고, 허물어져 가는 지구촌 보호하기 위하여 "제1차 10만불자정토결사(淨土結社)의 대작 불사"를 정토사상으로 무장하여 출발하려 합니다.

불교를 진심으로 열려하시는 불자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말고 이 시대적 요청인 무량수 무량광한 아미타원력을 실현할 대장정에 모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10만불자정토결사전진대회 일정 및 진행 방법

- 일시: 10월 30일 오후 5시(입제) ~ 10월 31일 오후 2시(회향 법회) (정토결사 청아 정진 및 전국순회 결사 대법회 개최에 따른 대 토론회)
- 장소: "봉화산 정토원 특설 법단"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TEL: (0525) 342-2991~2
- 연락처: (02) 732-7272~4, FAX (02) 732-7275
- 동참금: 이만원(W20,000) 식대 및 회비 포함
- 계좌번호: 국민은행 029-01-0556-057 (사)전국신도회
- 교통안내: 10월 31일 서울 조계사앞에서 오전 7시 관공버스 출발 사전 신청요함.

사단법인 대한불교전국신도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02) 732-7272~4, FAX (02) 732-7275

전국신도회 주관 4·8 봉축 여의도 대법회

호미든 관음개발성상 봉불식

40년전 31명의 젊은 불교학도들에 의하여 불교를 새롭게 일으켜 증생구제에 이바지 하려고 추진 봉안하였던 호미든 관음개발성상 봉불식은 혁신적인 불사였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관음상이 파손되어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4배의 크기(기단에서 약 12m)로 다시 조성하여 같은 장소에 봉안케 되었습니다.(사진참조)

이번에는 봉안 추진위원을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600명을 구성코자 하오며, 이 새로운 봉불식날에는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사 레

- 일시: 불기 2543(1999)년 10월 31일 오후 2시
- 장소: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특설 법단
- 연락처: 전화 (0525)342-2991~2 / (02)732-7272~4 FAX (02)732-7275

(※30일 오후5시 "10만불자정토결사전진대회"시작, 31일 "청소년한마당축제"개회)

1. 동참자격: - 개인 - 본 불사 동참 희망자 · 단체 - 불교회원, 단체
2. 동참혜택: - 희망자에 한하여 기념비석에 자기 성명이 삽입됨
- 소구소망을 기원하는 뜻으로 부처님 봉안에도 안치함.
3. 동참 연락처: 봉화산 정토원 (0525)342-2991~2.

단기4332년(불기2543년 서기1999년) 10월

초청하는 사람: 이한동, 박철언, 노우현, 김영일, 권오현, 강건기, 권영향, 김덕영, 김성호, 김양수, 김원공, 김지전, 박명식, 박은중, 박정암, 山田眞, 신진규, 안경우, 오덕규, 윤정광, 이봉구, 이하우, 이홍세, 전안호, 한정실

교무인내

1. 율치(새마을호, 무궁화호 수시운행): 서울-마산, 부산-마산 (진영역 하차, 5km지점에 봉화산이 있으며, 당일 광고차 20대 운반)

봉화산정토원 관음개발성상 봉안위원장 신진규 합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 (0525)342-2991~2



▲ 불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은 국경이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요소를 전부 뽑아 내고 새로운 불의(佛性)를 심어 자비와 평화와 화합과 통일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여 개발을 상징하는 우리스러움의 '호미든 관음성상'

40년전인 단기 4292(1959)년 4월 5일 관음선 봉안 당시 위원명단.

신진규, 이봉구, 김지전, 이한동, 배종일, 신병구, 황연강, 김해동(동현), 박경호, 김백민, 김광영(영대), 이종복, 김재호, 김기갑, 손영익, 김주태, 조재진, 김남식, 박원일, 김인덕, 최천호, 김두성, 최종열, 이재욱, 박동기, 강춘호, 안영근(경우), 박광도, 최병주, 배종대, 김영기(31명)